

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

차수	긴급 회의
일시	17. 12. 07 18 : 30
장소	총학생회실

참석확인 (10 / 13)

간호	경경	공대	사범	사과	약학	예술	인문	의학	자연	동연	부총	총
○	○	○	○	○	○		○		○		○	○

□ 보고 안건

1. 기획처 면담 일정

:12월 13일(수) 15시. 장소는 기획처장실(예정).

:참석자 : 기획처장, 60대 중앙운영위원회, 서기(총학생회 집행부)

□ 논의 안건

1. 정원이동 관련 단과대별 의견 수렴

-공과대학

: 2020년에 타 단대 인원을 조정하여 공대를 채우겠다는 현 안은 교지면적 상이로 인해 내려진 행정처분 원인에 대해 또 다른 정원 감축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. 특정 단과대의 증감 문제를 떠나 이후 학생들이 어떻게 부담할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. 11월 선거기간 내 진행된 논의에 있어서는 학생 의견 수렴이 전혀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. 교육부와 구두로 약속된 약속을 근거로 공대 108명을 2019년 조정하여 행정처분을 이행한다는 안이 도출된 것 자체가 10월 말(10월 25일) 조정안에 없던 부분. 선거기간으로 돌입하여 11월 학생 논의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1~6안이 도출되었으므로 여기에 학생 의견이 수렴되었다 볼 수 없음.

-인문대학

: 대학이 내부 자체적인 정원 조정이 전제로 하는 공과대학 108명 이동 이후에 대한 방안이나 대처능력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확인 필요. 이 때 보편적으로 신뢰가능성이 있는 자료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함. 새로 임기를 시작한 각 단과대학 운영위원회에서도 11월 선거기간 내 추가적으로 나온 정보에 대해 다시 논의해보는 시간이 있어야 할 것.

-사회과학대학

: 내부 자체적인 정원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공과대학의 발언에 공감. 현 상태로는 단과대학을 떠나 앞으로 학생사회 전반이 재차 정원 감축의 고통을 겪어야 할 수 있음.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할 부담이 있음. 행정처분 이후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몫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함.

-경영경제대학

: 20년에 재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확답이 필요. 추후 행정처분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담이 있음. 행정처분이 안 들어오면 좋겠지만,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후의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확답 또는 방향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.

=전반적으로 재조정 이후 다시금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위험성 우려 의견이 다수.

□ 의결 안건

1. 후속조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정적인 근거 요청

: 행정처분 이행 이후 내부 정원이동을 통한 후속조치가 차후 재차 정원 감축의 원인이 될 위험성은 없는지, 있다면 재차 정원감축이 이루어질 경우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, 교육부에서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(교육부 자료)를 12/8 내 송부 요청.

- 참석 단위 10단위 중 10단위 찬성 (가결)

2. 수혜자 판단의 기준, 판단 근거, 인원 감축의 계산법에 대한 자료 요청

: 수혜자 비율에 의한 인원 설정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, 감소되는 각 학부/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이 수혜자로 판단되었는지, 실제 감축 인원 산출에 사용된 계산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 자료 12/8내 송부 요청

- 참석 단위 10단위 중 9단위 찬성 (가결)

□ 기타 안건

1. 학교 본부의 입장 표명 재요구

: 59대 중앙운영위원회 요구안에 있는 ‘현 사안에 대한 본부의 입장표명 필요(의지 및 현 사안에 대한 입장 등)’ 의견에 대해 확인 후 본부가 이행하도록 재요청해야 할 것. - 주말 내 긴급중앙운영위에서 재논의 예정